

大靑龍湯의 투여로 고열이 호전된 소아 만성 상기도감염증 환자 6례에 대한 증례 보고

박영환
시중한의원

The 6 case reports of chronic upper respiratory infections with high fever in children, treated with *Daqinglong-tang*

Yung-Hwan Park
Si-joong Korean Medical Clinic

There are many children suffering from chronic upper respiratory infections with high fever(CURIHF) for years. High fever mainly caused by tonsillitis comes from cold and flu season-related. Observing CURIHF children, they also have a night sweat(盜汗) and a thick voice, a chronic cough, a loss of appetite in common.

I found that after administering the *Daqinglong-tang*(大靑龍湯) to the 6 CURIHF children, high fever was dropping quickly and did not recur for 233~733 days. Also, the symptoms of a night sweat(盜汗) and a thick voice, a chronic cough, a loss of appetite are improved significantly. These case report suggests that in case of CURIHF, *Daqinglong-tang* could effectively control recur of high fever in children.

Key words : upper respiratory infections, *Daqinglong-tang*, high fever, night sweat

I. 緒論

발열이란 대개 37.5℃ 이상을 지칭하며 일반 외래에서는 호흡기감염증, 요로감염증, 피부감염증 등이 흔한 원인인데¹⁾ 소아 발열환자는 호흡기감염증이 대부분이다. 호흡기감염증 중에서 인후통은 38℃ 이상의 고열이 특징이며 콧물, 두통, 기침 등을 동반하는 심한 감기나 독감 등 바이러스성 질환과 外感證狀이 없이 단지 목이 아프고 열이 나는 인두염 및 편도선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심한감기의 바이러스에 의한 인후통은 24~48시간 사이에 가장 심하며 잦은 재채기, 맑거나 끈적이는 콧물, 경미한 발열, 두통, 기침 등의 증상이 있다. 독감 인플루엔자에 의한 인후통은 겨울

철에 주로 유행하며, 전염되면 수 시간 내에 악화되며 고열과 發汗, 惡寒, 身痛, 疲勞, 재채기, 코막힘,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인두염과 편도선염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나 연쇄상구균과 같은 세균성 감염과 칸디다 같은 진균성 감염으로 발생하는데 편도선염은 소아에게 많이 발생하며 반복적으로 나타난다²⁾. 그러나 이들 질환은 rhinovirus 종에 감염되면 대부분 동시에 발병하므로 일반적으로 '상기도감염증'이라고 총칭한다.

임상에서 가장 어려운 치료 중에 하나가 바로 상기도감염증으로 인한 소아 고열환자인데 대부분 편도선염과 인두염을 동반하며 감염 후 38℃~40℃의 발열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기도감염증에는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Tylenol이나 ibuprofen을 처방하고 있다. 그런데 상기도감염증은 반복하여 발생하므로 Tylenol과 ibuprofen을 지속적

접수 ▶ 2013년 05월 03일 수정 ▶ 2013년 05월 28일 채택 ▶ 2013년 05월 28일 교신저자 ▶ 박영환,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길 11-1 시중한의원
Tel : 02-736-3654 Fax : 02-736-3123 E-mail : ocger@hanmail.net

1) 대한내과학회. 『일차진료의를 위한 약처방가이드』. 서울:한국의학원. 2000 : p.96.
2) 김성권 편역 David R. Goldmann. 『Complete Home Medical Guide』. 서울:이지케어텍. 2003 : p.139, 288-289, 479.

으로 투여하면 소아의 肝臟과 腎臟에 毒性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보호자가 투여할 경우 용량과다 등의 실수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³⁾.

이에 비해 한의학의 다양한 감기치료법은 소아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고열에도 신속한 해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고열을 동반한 상기도감염증에 대해 한의학에서는 다양한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傷寒雜病論』에서는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惡寒, 發熱, 喘, 煩躁, 大熱 등의 證만 있을 뿐 高熱이란 證은 없기 때문에 현대 의학용어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傷寒治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임상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다.

몇 년 전 본원에 내원한 8세의 A군은 어릴 때부터 봄·가을만 되면 만성적인 상기도감염증으로 5~10여일 정도 39℃이상의 고열과 croup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런데 A군이 大靑龍湯 1회 복용으로 39~40℃의 고열이 發汗과 함께 20분 만에 내려가고 안정되는 證例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그 후 몇 차례 大靑龍湯을 더 복용시켰더니 평소 있었던 盜汗과 croup도 없어지고 항상 가래가 가랑가랑하던 목소리와 잔기침도 사라졌다. 이후 4년간 관찰한 결과 고열은 단 1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단지 봄·가을에 일 반적인 기침, 콧물만 있을 뿐이었다. 이 證例에 의구심을 가지고 소아 만성 상기도감염증 환자들을 진찰한 결과 A군과 같이 고열, 盜汗, 기침의 症狀을 동시에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들은 거의 모두 해열제진통제를 장기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동일한 증상을 가진 10살 미만의 소아환자에게 大靑龍湯을 투여해보기로 했다. 약 2년경과 후, 2011년부터 치료한 소아환자들에게 고열이 재발했는지의 여부를 2013년 전화로 확인하였으며, 이들 중 연락이 가능한 8명 중 6명의 치료경과를 證例로 정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臨床證例

1. 증례 4) 1

3) 식약청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발진, 욱지기, 두통, 가려움증, 발열 등 2206건의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이 접수되었다. 2009년에는 어린이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들어간 해열 진통제를 자주 먹으면 천식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CHEST지에 게재됐다. Koreamedicare(2006) “건강뉴스” 코메디닷컴 <http://www.kormedi.com>

4) 증례는 진료부에 의거, 보호자의 증상 표현을 가급적 그대로 옮겼다.

1) 환자

이○○

2) 성별/연령

남/6세 (07년생)

3) 주소

평소 비염으로 코가 막히고 소화 장애가 있음. 평소 인후통과 목감기로 고열이 수시로 발생. 잠이 들면 초저녁에 땀을 많이 흘림. 기침이 있음. 식욕이 없고 식사량이 적음.

4) 발병일

확실하지 않음.

5) 현병력

최근 1주일 밖에 심하게 나가놓고 고열을 동반한 상기도 감염증이 발생(2012/8/11)

6) 치료

2012/8/11 大靑龍湯 5첩.

7) 치료경과

2012/8/11 치료이후 고열감기가 전혀 없었다고 하며 盜汗證도 사라지고 식욕도 좋아졌다고 함. 2013/4/8 내원 시 이번 겨울내 감기로 아프지 않고 잘 지냈다고 하며, 근래 감기로 기침이 조금 있으나 열은 없다고 함.

2. 증례 2

1) 환자

김○○

남○○

2) 성별/연령

2) 성별/연령

남/7세 (06년생)

여/10세 (03년생)

3) 주소

3) 주소

아침마다 코가 막혀 킁킁거림. 편도가 잘 부음. 편도가 부어 고열이 날 때 해열제를 자주 복용함. 열이 없을 때는 기침, 콧물이 항상 있음. 감기를 자주 앓음.

평소 계절이 바뀔 때 마다 목이 아프며 기침과 고열감기가 1주일씩 지속됨(1학기 1회, 2학기 1회). 감기가 오면 물과 해열제로 복용하면서 버티고 병원에는 가지 않음. 잠이 들면 초저녁에 땀을 많이 흘림. 평소에 목소리가 탁함. 평소 입맛이 없어서 식사량이 적음.

4) 발병일

4) 발병일

확실하지 않음.

확실하지 않음.

5) 현병력

5) 현병력

2011/6/10에 상기도감염증으로 40℃의 고열이 와서 해열제 복용함. 그 후 오른쪽 눈에 눈물이 고이고 기침을 많이 함. (2012/6/17)

최근 계속 코감기가 있고 미열이 있는데 앞으로 고열감기가 예상되어 치료하려 음. (2011/3/6)

6) 치료

6) 치료

2012/6/17 大靑龍湯 5첩
2012/6/23 大靑龍湯 5첩
2012/9/1 大靑龍湯 5첩

2011/3/6 大靑龍湯 5첩
2011/3/12 大靑龍湯 5첩
2011/3/22 大靑龍湯 5첩
2011/4/18 大靑龍湯 5첩
2011/7/2 大靑龍湯 5첩
2011/11/12 大靑龍湯 5첩
2011/11/18 大靑龍湯 5첩
2011/12/3 大靑龍湯 5첩
2011/12/9 大靑龍湯 5첩
2011/12/16 大靑龍湯 5첩

7) 치료경과

7) 치료경과

2012/6/17~23 치료 후 오른쪽 눈에 눈물이 고이는 증상이 없어짐. 2012/9/1내원 시 아침에 기침을 많이 한다고 함. 2012/11/8 내원 시 감기로 콧물, 코막힘, 기침 증상이 있고 아침저녁으로 코를 킁킁거린다고 함. 감기증상은 있으나 고열은 없어짐. 2013/4/22에 확인 결과 지금까지 고열은 없었으며 기침, 코막힘 증상은 1~2회 있었음.

상기환자는 어릴 때부터 평소 1년에 2차례씩 주기적인 상기도감염증으로 인한 고열로 고생하던 환자였다. 大靑龍湯으로 치료시작 후 2011/3/22일 내원 시에는 고열이 발생

3. 증례 3

1) 환자

했다고 하며 4/18 내원 시에는 미열과 盜汗, 기침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2011/7/2 내원 시에는 인후통만 있다고 하였으며, 2011/11/12 내원 시에는 아직 濁聲이 남아있다고 함. 그러나 식사량도 좋아지고 그간 고열도 전혀 없었다고 함. 이후 2011/12/16까지는 고열은 없고 콧물 기침, 濁聲 때문에 내원함. 2013/1/12 내원 시 확인한 결과 그간 상기도감염증으로 인한 고열은 없었으며 감기도 잘 걸리지 않았다고 함.

4. 증례 4

1) 환자

김○○

2) 성별/연령

여/6세 (07년생)

3) 주소

평소 감기기운이 항상 있으며 조금만 움직여도 이마에 땀이 쉽게 나는 편임. 목이 항상 부어있고 찬 것만 먹으면 바로 목이 붓고 열이 심해짐. 잠이 들면 초저녁에 땀을 많이 흘림. 식욕이 없고 식사량이 적음.

4) 발병일

확실하지 않음.

5) 현병력

최근 찬 것을 먹고 고열을 동반한 상기도감염증이 발생 (2011/4/21).

6) 치료

2011/4/21 大靑龍湯 5첩

7) 치료경과

2013/4/23에 전화 확인 결과 지난 가을 목감기가 있었으나 고열은 없었다고 함. 치료이후 지금까지 고열은 없었음. 盜汗은 아직 있음. 식사량을 좋아짐.

5. 증례 5

1) 환자

김○○

2) 성별/연령

남/6세 (07년생)

3) 주소

평소 감기가 자주 걸림. 감기가 오면 40℃까지 고열이 올라가므로 2010년에 편도선 제거 수술을 함. 그러나 편도선 제거 수술 후에도 감기가 걸리면 40℃까지 올라감. 유치원에 가서 감기가 심해짐. 잠이 들면 초저녁에 땀을 많이 흘림.

4) 발병일

확실하지 않음.

5) 현병력

최근 고열을 동반한 상기도감염증이 발생 (2011/11/4).

6) 치료

2011/11/4 大靑龍湯 5첩

2011/11/14 大靑龍湯 5첩

2011/11/25 大靑龍湯 5첩

7) 치료경과

2011/11/25에 내원 시 헛기침을 많이 함. 盜汗이 많이 줄음. 콧물은 적고 기침이 많음. 식사량도 늘음. 2011/12/7

에 내원 시 콧물이 노란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뀜. 2013/4/24에 확인결과 그동안 고열은 없었으며 盜汗은 지금도 간혹 있음.

6. 증례 6

1) 환자

김○○

2) 성별/연령

남/4세 (09년생)

3) 주소

2009년에 감기 때문에 39℃의 고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이니 10분 있다가 폭 쓰러짐. 그 이후 고열이 날 때마다 갑자기 눈을 위로 치켜뜨면서 10분미만으로 驚氣를 함. 항상 편도가 부으면서 열이 남. 더위를 많이 타고 手足에 땀이 많이 남. 식욕이 없고 식사량이 적음. 잠이 들면 초저녁에 땀을 많이 흘림.

4) 발병일

2009년

5) 현병력

고열을 동반한 상기도감염증이 발생 (2011/11/4)

6) 치료

- 2011/11/4 大靑龍湯 5첩
- 2011/11/14 大靑龍湯 5첩
- 2011/11/25 大靑龍湯 5첩
- 2011/12/6 大靑龍湯 5첩
- 2011/12/19 大靑龍湯 5첩

2011/12/28 大靑龍湯 5첩

7) 치료경과

2011/11/4 치료이후 고열감기가 없었으며 피부가 좋아짐. 식사량이 늘음. 2011/11/25 콧물만 살짝 나옴. 목소리도 좋아짐. 2011/12/6 콧물이 흐름. 손에는 땀이 안 나고 발에만 남. 盜汗도 사라지고 식욕도 좋아졌다고 함. 2013/4/24에 확인결과 그동안 고열은 없었다고 함.

Ⅲ. 考察

1. 조사대상, 처방 및 투약법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시중한의원(이하 본원)에 상기도감염증⁵⁾으로 내원한 환자 중에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症狀이 있는 소아환자들에게 大靑龍湯을 투여하였다.

- 1) 상기도감염증 시 편도가 붓고 38℃~40℃의 고열이 지속되고 無汗하며, 기존에 해열제를 복용한 경우.
- 2) 상기도감염증이 봄·가을 매년 주기적으로 발병하고 반드시 고열을 동반하는 경우.
- 3) 평소 취침과 동시에 머리와 등에 상당량의 땀을 흘려 이불이 젖고 옷을 갈아입혀야 하는 경우(이하 盜汗). 간혹 더위를 많이 타거나 手足汗證을 호소하기도 하는 경우.
- 4) 열을 동반한 상기도감염증이 없어도 평소에 목소리가 탁하거나 기침을 하는 경우 (이하 濁聲, 咳嗽).
- 5) 입맛이 없어서 식사량이 적은 경우.

2. 처방 및 복용법

大靑龍湯은 1첩을 麻黃 3.6g, 桂枝, 甘草, 杏仁 각 1.2g, 生薑, 大棗 각 1.8g, 石膏 4.8g으로 하였다. 이는 『漢方古方解說』⁶⁾의 용량을 따른 것이며 책에서 제시한 대로 1첩을 100cc로 전취하여 1회 溫服하게 해야 하나 소아는 半減하므로 1일에 1첩을 1~2회에 나누어 따뜻하게 복용하도록

5) 상기도감염증과 감기는 동일한 병명이지만 본 증례에서는 진료부의 기록(환자의 口述)을 따라 감기, 편도선이라 기술하였고, 본문에서는 상기도감염증으로 표기하였다.

6) 奥田謙藏 著 鄭民鉉 譯. 『漢方古方解說』, 서울:三元文化社. 1998 : p.124.

하였다. 大靑龍湯을 복용할 때는 옷을 따뜻하게 입거나 이불을 뒤집어쓰고 곧바로 뜨거운 승냥을 한 컵 마시도록 하여 체온을 올리고 發汗이 살짝 되도록 하였다. 해열제는 복용을 중지하라고 지시하였다. 모든 환자에게 加減없이 동일하게 5첩 단위로 처방하였다.

3. 치료경과의 확인

大靑龍湯 투여 후 2년~8개월 정도 경과한 소아환자들에게 그동안 고열, 盜汗의 재발되었는지, 濁聲, 咳嗽의 개선되었는지, 식사량의 증가되었는지 등을 환자의 부모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하였다.

4. 증례 분석

6개의 증례를 분석하였을 때 患兒의 연령은 4~10세의 소아들이었으며 치료일수는 5일에서 50일 정도 소요되었다. 患兒들 大靑龍湯 복용 후 고열이 치료되었으며 치료 후 233일에서 733일의 기간 동안 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 盜汗의 감소는 4개의 증례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기도감염증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며 기침, 콧물 증상은 봄·가을 환절기에 여전히 약하게 발생하였다. 위 증례에서는 다른 처방은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大靑龍湯만 투여하여 경과를 관찰한 경우이며, 관찰기간 내 상기도감염증이 재발하여도 고열은 없었다.

표 1. 증례 1~6의 결과를 도표로 정리함

| 증례 | 성별 /연령 | 투약 (첩) | 투약 후 고열 여부 | 盜汗 | 濁聲 | 食慾 |
|----|--------|--------|------------|-------|-----|-----|
| 1 | 남/6 | 5첩 | 240일간 없었음 | 없어짐 | 맑아짐 | 좋아짐 |
| 2 | 남/7 | 15첩 | 233일간 없었음 | 아직 있음 | 맑아짐 | 좋아짐 |
| 3 | 여/10 | 50첩 | 393일간 없었음 | 없어짐 | 맑아짐 | 좋아짐 |
| 4 | 여/6 | 5첩 | 733일간 없었음 | 아직 있음 | 맑아짐 | 좋아짐 |
| 5 | 남/6 | 15첩 | 486일간 없었음 | 약간 있음 | 맑아짐 | 좋아짐 |
| 6 | 남/4 | 30첩 | 537일간 없었음 | 없어짐 | 맑아짐 | 좋아짐 |

7) 2013년 현재 국회도서관에서 “대청룡탕”으로 검색한 결과임.

8) 許浚. 『東醫寶鑑』. 서울:여강출판사. 1994 : p.1345.

9) 大塚敬節 矢數道明 清水藤太郎 共著 鄭民鉉 譯. 『實際 漢方診療』. 서울 : 東洋綜合通信教育院. 1962 : p.540.

5. 문헌보고

현재 우리나라는 傷寒方 臨床의 대부분은 日本 漢方書籍을 토대로 응용 발전한 것이므로 日本과 동일하게 外感 咳嗽에 大靑龍湯보다는 小靑龍湯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大靑龍湯에 대해서는 국내에 단지 4편의 실험논문만 발표되어 있으며 모두 지방세포분화기전이나 호흡기 점액분비와 관련된 것이고 傷寒條文과 관련한 임상 연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⁷⁾. 하지만 『東醫寶鑑』의 大靑龍湯 해설을 따르면 “傷寒을 치료할 때 처음에는 桂枝湯을 쓰고 다음에는 麻黃湯을 쓰며 그 다음에는 靑龍湯을 쓴다. 桂枝湯은 傷風證을 치료하고 麻黃湯은 傷寒證을 치료하며 靑龍湯은 傷風證에 傷寒脈을 겸했거나 傷寒證에 傷風脈을 겸한 것을 치료한다. 그러니 이 세 가지 처방은 술의 3발과 같다고 볼 수 있다.⁸⁾”라고 하여 과거 임상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6. 處方 및 證候 분석

麻黃湯은 열이 나면서 땀이 나지 않는 감기증상에 기침이 있는 경우 사용하는 基本方이다. 大靑龍湯은 麻黃湯에 生薑, 大棗, 石膏를 넣어 “發熱惡寒身疼痛無汗而煩躁”의 證을 치료하는 處方으로 麻黃湯證에 內熱煩躁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에 대해 大塚敬節 등은 “麻黃湯의 目標에 比較하면 病勢가 한층 심하고 煩躁狀態를 나타냄에 이른 경우”라고 定義하고 石膏를 가미하여 효과가 증대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어느 것이든 症狀이 심하고 自覺症에도 苦痛이 심한 것을 目標로 한다.”고 하였다⁹⁾. 또 『藥徵』에서 “石膏主治 煩渴也. 旁治 譫語 煩躁 身熱.”이라고 하였고 『藥性歌』에서도 “그 性이 大寒하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大熱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내용은 저자가 고열의 상기도감염증에 大靑龍湯을 이용해 강력한 해열작용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였던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유사한 處方인 麻杏甘石湯은 麻黃湯에서 桂枝를 減하고 石膏를 加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咳嗽, 發熱, 汗出口渴이 있는 邪熱壅肺證에 사용하며, 越婢湯은 麻黃湯에 杏仁, 桂枝를 減하고 生薑, 大棗, 石膏를 加한 것인데 보통 風水, 惡風이 있으며 浮腫 自汗이 있을 경우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處方 역시 石膏가 있지만 大熱이나 煩躁 등을 目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傷寒論에서 石膏가 반드시 大熱, 煩躁를 치료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또 尤怡는 “表實之人, 不易得邪. 沒得之, 則不能泄衛氣, 而反以實陽氣, 陽氣既實, 表不得通, 閉熱于經則 脈繁身痛, 不汗出而煩躁也.”¹⁰⁾이라 하였는데, 古人들의 “煩躁”가 현재 38℃이상의 고열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大熱”, “咽痛”, “心煩”, “煩熱” 등의 다른 傷寒證과 비교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후 고열의 상기도감염증에 大靑龍湯과 麻黃湯, 麻杏甘石湯 등을 비교 투약해 보는 것도 연구의 객관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7. 盜汗과 無汗의 구별

또한 증례에 언급한 盜汗은 공통적으로 취침하자마자 땀이 나기 시작하는 특징이 있었다. 보통 베게만 젖을 정도만 조금 흘리기도 하지만 약 1~3시간 동안 이불과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많은 양을 흘리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 증상은 상기도감염증의 발병시기와는 관계없이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증례의 소아환자들은 깨어있는 시간에는 發熱惡寒과 無汗을 호소하기 때문에 麻黃湯證에 해당한다. 하지만 無汗으로 解熱이 되지 않아 힘들어하다가도 수면을 취해 깊은 잠이 들면 곧 發汗하기 시작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평소에는 땀이 없다가 外感證狀으로 인해 땀을 흘리는 桂枝湯證의 ‘汗出’과는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盜汗은 傷寒論에서 桂枝證과 麻黃湯證을 구분하는 無汗·汗出과는 다른 것이며, 玉屏風散이나 黃芪湯, 當歸六黃湯 등으로 치료되는 일반적인 虛證의 盜汗과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三黃元이나 涼膈散으로 胸中の 心火와 相火를 瀉하여 치료하는 童子盜汗¹¹⁾의 기전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평소 식은땀을 흘리거나 체력이 허약한 소아의 경우 大靑龍湯을 장기 투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아 감기환자 중 평소 목소리가 탁하며, 기침도 자주하고, 밥을 잘 먹지 않고, 잘 때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하고, 감기가 걸리면 목이 붓고 38℃ 이상의 고열이 급격히 발생하여 해열제를 3~5일 정도 항상 복용한다고 호소하는 경우라면 우선 大靑龍湯을 처방하여 고열과 盜汗을 안정시

킨 후 증상과 체질에 따라 餘症을 치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차후 이에 대한 많은 임상보고를 기대하는 바이다.

IV. 要約

1. 38℃~40℃의 고열을 동반한 상기도감염증은 편도선염이 주원인이며 계절마다 반복되는 특징이 있는데 盜汗, 濁聲, 기침, 식욕부진의 증상을 동시에 호소하는 경우 大靑龍湯을 투여하였다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열의 치료 및 상당기간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었다.
2. 소아가 평소 盜汗證을 호소할 경우 만성적인 상기도감염증이 있는지 우선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3. 고열을 동반한 상기도감염증을 반복해서 앓는 소아의 경우 우선 大靑龍湯으로 고열을 안정시킨 후 나머지 餘症을 傷寒治法에 따라 辨證하여 치료하면 좋을 것이다.

參考文獻

1. 孟雄在 譯編. 『傷寒論概說』. 익산 : 圓光大學校出版局. 1996 : 70.
2. 대한내과학회. 『일차진료의를 위한 약처방가이드』. 서울 : 한국의학원. 2000 : 96.
3. 김성권 편역 David R. Goldmann. 『Complete Home Medical Guide』. 서울 : 이지케어텍. 2003 : 139, 288-9, 479.
4. 奧田謙藏 著 鄭民鉉 譯. 『漢方古方解說』. 서울 : 三元文化社. 1998 : 124.
5. 許浚. 『東醫寶鑑』. 서울 : 여강출판사 1994 : 228, 1345.
6. 주광. 권건혁 역. 『국역 활인서』. 서울 : 반룡. 1999 : 159, 162.
7. 龐安時. 『傷寒明理續論』. 山西 :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0 : 466.
8. 大塚敬節, 矢數道明, 清水藤太郎 共著, 鄭民鉉 譯. 『實際

10) 尤怡. 『傷寒貫珠集』. 北京 : 中國古籍出版社. 2009 : p.19.

11) 許浚. 『東醫寶鑑』. 서울 : 여강출판사. 1994 : p.228.

漢方診療』. 서울 : 東洋綜合通信教育院. 1962 : 540.

9. 尤怡. 『傷寒貫珠集』. 北京 : 中國古籍出版社. 2009 : 19.

10. Koreamedicare(2006) “건강뉴스” 코메디닷컴 <http://www.kormedi.com>